

따뜻한 겨울나기 이웃사랑나눔

전주시 덕진구, 목표액 1억5000만원 정하고 내달 1일부터 추진

덕진구는 오는 12월 1일부터 어려운 이웃들과 마음을 나누기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 이웃사랑나눔'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이번 '따뜻한 겨울나기 이웃사랑나눔' 행사의 목표액을 1억5,000만원으로 정하고, 기업체와 단체, 공공기관, 시민(독자가) 등 후원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렇게 기부된 후원품은 덕진구 저소득계층 1만5,800여 가구와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등 46개소 이용자들이 조금이나마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전달될 예정이다.

동시에 구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경로당 가스 안전 점검 및 화재보험료 지원, 동절기 한파 센터 지정 경로당 운영 점검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구는 경로당의 화재 및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LPG 경로당 62개소에 대한 가스시설 안전 점검을 완료한 상태로, 점검 결과 조치가 필요한 7개소에 대해서는 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설보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는 올해 65개소 경로당에

서 가입한 화재보험료 226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 연말까지 경로당 화재보험 가입을 지속 유도해 경로당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최병집 덕진구청장은 "저소득 가정과 소외계층이 외롭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린다. 아동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전기화재 초동 진압 위한 '자동소화용구' 설치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초기 전기화재 대응을 위해 혁신 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도입했다.

23일 공단에 따르면 이 장비는 전기화재의 초동 진압을 위한 '자동소화용구'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시설인 전주 월드컵경기장과 월드컵골프장의 분전함에 설치됐다.

화재로 내부 온도가 섭씨 100도 이상 오르면 자동으로 소화약제가 분사되는 방식으로 초기 화재 진압에 효과적이다.

공단은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화재의 빈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자동소화용구를 도입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의 발화 요인 중 전기적 요인이 23.1%로 부주의(50.0%) 다음으로 많다.

공단은 시범 운영 후 장비를 전 시설로 확대할 예정이다.



초기 전기화재 대응을 위한 '자동소화용구'를 설치하는 모습. (사진=전주시설공단 제공)

구대식 이사장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본연의 역할을 고려해 ESG의 비재무적 3가지 요소에 '안전(Safety)'을 더해 'ESSG' 으스 경영'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혁신 기술을 도입하는 등 안전한 공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전주시, 무주택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나서

12월 6~8일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17명 공개 모집

전주시는 오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렴한 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공개 모집한다.

입주자 모집물량은 올해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덕진동 9호(하가지구)와 입주자 퇴거에 따른 공실 5호(전주대 인근 효자동 3호, 전북대 인근 금암동 1호, 서소송동에출촌 인근 중소송동 1호) 등 총 14호이다.

주거 형태는 △1인 단독주택형 12호

△2인 공동주택형 1호 △3인 공동주택형 1호로, 모두 학업과 취업 준비 등 이사가 잦은 청년층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병상고와 세탁기, 에어컨이 구비돼있다.

입주 자격은 19세~39세 청년 또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주택인 미혼 청년으로,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순위별 입주 자격은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이며,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

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2인=550만원, 3인=671만원)이어야 한다.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최종 선정되면, 이르면 12월 중순부터 입주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주거형태와 평형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임대보증금 50만원에 월 임대료 6~26만원으로 시세의 40% 이하 수준으로 저렴하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까지(최장 10년) 재계약할 수 있다.

/김육기 기자

전주시소상공인연합회, 전윤미 전주시의원에게 공로패 수여

"소상공인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전주시의회 전윤미(효자 2·3·4동,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의원이 소상공인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주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유정명)는 23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헌신적인 노력을 한 공로를 인정해 전 의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전 의원은 "시민의 선택을 받은 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헌신적인 노력을 한 공로를 인정해 전윤미 전주시의회 의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김육기 기자



전주시와 (주)이마트 전주점·에코시티점은 23일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에서 '희망나눔꾸러미' 전달식을 가졌다.

전주시 사회적 고립가구에 '희망나눔꾸러미' 전달

이마트 전주점·에코시티점 후원 생필품 구성

전주시와 (주)이마트 전주점·에코시티점(점장 최화목)은 23일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관장 기은하)에서 '희망나눔꾸러미'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사회적 고립 가구와 고독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등장한 고립가구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웃사랑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전달된 '희망나눔꾸러미'는 지역사회에서 상생과 복지를 실천해온 (주)이마트 전주점·에코시티점의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약 15개 정도의 생필품으로 구성된 사회적 고립 고위험가구 150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후원에 힘을 모은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적 고립가구 중 특히 고립의 위험에 놓인 가족 돌봄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

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을 지원하는 '일상생활돌봄서비스'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최화목 이마트 전주점·에코시티점 점장은 "이번 희망나눔꾸러미 지원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외롭고 소외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사회 어려운 가정과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꾸준히 나눔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육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